

# ‘전쟁 끝났다’ 증시 환호...코스피 5% 급등

###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 발동 외국인 2거래일 연속 순매수 시총 상위 10종목 모두 상승 항공주·약품주 등도 급등



15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이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22.36p(5.20%) 오른 8545.98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402.50p(4.95%) 오른 8526.12로 출발, 한때 5.91% 상승한 8603.48까지 올랐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급등하며 개장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이는 지난 12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 발동이다. 을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이드카 발동만 26번으로,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동률이다. 서킷 브레이크까지 더하면 극심한 변동성에 대한 시장 개입은 29번에 달한다. 이날 증시 상승은 외국인이 이끌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 12일부터 기준 ‘2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끊고 ‘사자’에 나선 외국인은 이날 1조119억원 순매수에 2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였다.

기관도 5392억원 순매수했다. 다만 개인은 외국인과 정반대 행보로 2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이날에만 1조4882억원을 팔아치웠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758억원을 순매도했으나,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44억원, 147억원 순매수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 내용이 담긴 종전 양해각서(MOU)를 현지시간 오는 19일 서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심이 되살아났다는 분석이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모두 상승한 기준

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 각각 4.50% 오른 33만7000원, 6.42% 오른 228만8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기와 삼성물산 상승률은 각각 16.63%, 14.58%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6.59%, 삼성생명과 HD현대중공업은 9% 넘게 올랐다. 유가 하락에 제주항공(18.66%), 아시아나항공(13.86%), 대한항공(12.78%) 등 항공주도 두 자릿수로 마감했다.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관련주 현대약품과 TS트러리온은 상

한가로 장을 마치기도 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19.14p(1.86%) 오른 1048.19에 장을 시작해 4.98p(0.48%) 오른 1034.03으로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064억원 순매도 하고, 개인과 기관은 6164억원, 2164억원씩 순매수했다. 시총 1, 2위인 알테오엔과 예코프로비엠은 각각 3.56%, 9.71% 상승했다. 전장에서 크게 올랐던 반도체 관련주 원익PS와 이오테크닉스는 각각 4.80%, 13.24% 하락률로 장을 마쳤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 광주 수출 ‘경고등’...대미·대중국 부진 지속

### 반도체·타이어 등 감소에 지난달 15억3000만달러 전년비 4.0% ↓...지역 10억9000만달러 흑자 그쳐

반도체와 타이어 등 수출 감소로 지난 달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 흑자폭이 줄면서 가까스로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지역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5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5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출은 56억6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13.6% 증가했다. 수입은 45억7000만달러로 28.5% 늘어 무역수지는

10억9000만달러 흑자였다. 2월 13억달러, 3월 19억3000만달러, 4월 18억1000만달러에 이어 4개월 연속 10억달러 이상 흑자를 이어갔지만 흑자 규모는 크게 꺾였다. 올들어 누계 기준 무역흑자는 71억3000만달러에 달했다. 5월 광주지역 수출은 15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4.0% 감소했다. 수입은 7억8000만달러로 9.7% 증가

했으며 무역수지는 7억6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수송장비 수출이 22.1%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반도체는 25.4%, 기계류·정밀기기는 22.1%, 가전제품은 42.0%, 고무타이어 및 튜브는 14.7% 각각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 수출이 73.9%, 중남미가 25.5% 증가했지만 동남아(-24.3%)와 미국(-17.4%), 중국(-6.6%)이 감소했다. 특히 미국은 5개월 연속 감소, 중국은 4개월 연속 감소한 수치다. 5월 전남지역 수출은 41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9% 증가했다. 수입은 38억달러로 33.1%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3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석유제품과 수송장비가 이끌었다. 석유제품 수출은 31.5%, 수송장비는 97.7%, 화공품은 8.9% 증가한 반면 철강제품은 11.9%, 기계류·정밀기기는 14.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동남아 41.7%를 비롯해 유럽연합(17.5%), 일본(6.3%)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 중국(-8.0%)과 미국(-31.4%)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반도체 투자 기대감에 서산 연일 ‘상한가’

### 이란 종전 합의도 투자심리 자극...투자주의종목 지정

코스닥 지수가 급락 이후 천스닥을 회복한 가운데 미국-이란 종전 소식과 대형 반도체 기업의 광주·전남 투자 기대감에 수혜주로 꼽히면서 광주 대표 레미콘 기업인 서산이 연일 급등세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산은 이날 전장 대비 29.88% 오른 2195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9일 종가인 979원과 비교해 5거래일 만에 2배가 넘게 상승했다. 본사 인근 광주 첨단3지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공장이 유력시된다는 기대감에 이날 종전 합의로 건설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산은 지난 10일 1272원(29.93% ↑), 11일 1300원(2.20% ↑), 12일 1690원

(30.0% ↑)으로 이날까지 4거래일 중 3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했다. 단기적인 상승으로 이날 하루 동안 서산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한 서산은 콘크리트제품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다. 지난 1974년 설립돼 2005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현재는 콘크리트제품 제조와 에너지솔루션 2개 사업부 체제로 운영되며, 콘크리트 분야에서는 레미콘 및 2차 제품을, 에너지솔루션 분야에서는 전기가 충전기 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반도체 공장 기대감에 하남산단에 있는 부곡철강도 12일 11.34%, 15일 4.65% 상승했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는 15일 광주 광산구 서봉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1회 송정농협조합장배 파크골프대회’ 현장을 찾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농협 광주본부는 15일 광주 광산구 서봉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1회 송정농협조합장배 파크골프대회’ 현장을 찾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대회는 송정농협이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로, 남자 조합원 52명과 여자 조합원 40명 등 총 92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며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파크골프를 통해 건강한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우리 농산물로

#### 농협 광주본부, 송정농협 파크골프대회서 홍보부스 운영

여가문화를 즐기는 한편 조합원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며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농협 광주본부는 대회 현장에 별도의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병행했다. 임직원

이 함께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현장 중심의 릴레이 홍보활동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축산물 소비 촉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청년미래적금 22일부터 신청

### 최고 연 7~8% 금리...계좌개설 8월 7일까지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7~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신청자는 내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이후에는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절차와 유의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고정금리 상품으

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p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최초 가입기간(6월22일~8월7일)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직전연도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은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취급기관(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첫 주(6월22~26일)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5영업일(6월29일~7월3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 및 매출액 확인 등 가입요건 확인을 위해 사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소상공인 가입심사기간 종료 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자격(매출액 기준)으로 심사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소득 심사를 거쳐 일반형·우대형 대상이 자동 분류된다. 결과는 다음 달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연립수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과제 찾는다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 24일 지역경제세미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황광명)와 목포본부(본부장 김준철)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의 향후 대응 전략과 정책과제를 토론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전략 및 정책과제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과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의 축사에 이어 1부 주제발표와 2부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박건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과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범에 따른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를, 최성환 연구위원(광주연구원)이 ‘재정지원 20조원의 경제효과와 투자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2부에서는 이찬영 교수(전남대학교)의 사회로 배정환 교수(전남대학교), 정삼준 교수(목포대학교), 오병기 실장(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소), 박시현 본부장(광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본부), 신준영 부장(한국은행 광주전남기획조사부)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연재용 기자

## 광주선운2 단독주택·주유소 용지 제공급

### 22~24일 LH청약플러스 접수...2년 분할납부 조건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LH)는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내 잔여 토지 가운데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2필지, 주유소 용지 1필지 총 3필지를 제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2필지는 각 262㎡(약 397000㎡), 286㎡(약 494000㎡) 규모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지구 내 유일하게 계획된 주유소 용지의 면적은 1346㎡(공급예정가 약 30억원)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LH는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가 광주송정역, 광주공원과 인접해 있으며 무안광주고속도로, 운수 IC 등 광주 시내·외로 이동하기 수월해 우수한 교통 입지를 가졌다고 전했다. 또 인근 평동(3km)·하남(8km)·소촌일반산단지(2km) 및 빛그린산단단지(13km) 등 배후 수요 유입

이 용이하며, 황룡강 친수공원, 어등로 산책로 등이 가까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금 납부 조건은 2년 유이자 분할납부 방식으로, 계약금 10%를 납부 후 6개월 단위로 중도금 및 잔금을 분할납부 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단독주택지는 24일 오후 5시 30분, 주유소용지는 24일 오후 5시 결정된다. 당첨자·낙찰자 발표는 같은 날 오후 6시 이후이며, 계약은 29일부터 30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공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apply.lh.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LH 통합 콜센터(1600-1004) 및 LH광주전남판매팀(062-360-3175)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